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157>

JCCT 2022-3-20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Grit and Career Anxiety of College Students

김정은*, 조여진**, 정정임***

Jung Eun Kim*, Yeo Jin Cho**, Jung Im Ju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그릿과 진로불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생 24명이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기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는 그릿과 진로불안척도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맨 휘트니 유(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고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으로 프로그램 전후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실험집단의 대상이 통제집단에 비해 그릿이 높아졌으며 진로불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그릿, 진로불안, 진로집단상담,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hanges in Grit and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by conducting a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 four-year college students, an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from September, 28, 2021 to November 16, 2021, for a total of 8 sessions. Research tools consisted of Grit and career anxie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The Mann-Whitney U test was performed to secure the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grit and lowered career anxiety than the control group.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rit, Career Anxiety, Career Group Counseling, College students

1. 서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COVID 19와 경제적 불황의 장기화 등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양한 직업이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는 진로환경에 대한 변화는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스펙 쌓기에 대한 압박감, 학업, 대인관계, 등록금,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정희원,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교신저자)

***정희원,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공동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6,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First Author: jekim@uu.ac.kr

Dept. of Social Welfare, Uiduk University, Korea

등과 더불어[1,2,3], 불확실한 진로환경은 대학생들에게 정서불안을 경험하게 한다[4,5,6].

진로는 한 개인에게 전생애의 중요한 선택과정이고 대학생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탐색기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활동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시기이다[7]. 자신의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맞는 진로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진로 설정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이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자신감을 저하시킨다[8]. 대학생들은 진로불안이 높을 경우 진로결정문제를 야기하며[9], 진로미결정[10,11], 진로수행능력 저하[12] 등 진로부적응을 겪게 된다.

또한 COVID 19가 장기화되고 경제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등 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취업환경을 고려해보면 대학생들은 미래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내적 동기화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3,14,15].

그릿(Grit)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지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열정과 인내이다[16].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장기목표를 향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를 그릿이라 하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에 관심을 유지한다. 또한 보상 및 피드백에 개의치 않고 좌절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특성을 가진다[17]. 또한 대학생은 관심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을 통해 개인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조절 및 통제, 높은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18].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가 그릿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은영·이계희[19]와 대학생의 그릿과 낙관성 진로적응성을 연구한 정은이[20], 대학생의 그릿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한다는 장유리·허진영[13], 대학생의 그릿향상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오경화·탁진국

[21] 등을 통해 그릿과 진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정서, 행동, 인지 등을 통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더욱 향상된 수준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킨다[22]. 또한 진로 집단상담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생들 간의 공통적 필수 요인인 직업정보 확보, 직업계획에 대한 능률적인 검토, 직업 가치관의 중요성 등 전반적 오리엔테이션의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고 그릿을 높일 수 있는 그릿향상 진로집단상담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으로 무선 배정 진행했으며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기 실시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삼원그릿척도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 5문항, 흥미유지 5문항, 조화열정 5문항, 진로불안척도의 하위요인인 과정에 대한 불안 4문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6문항, 책임에 대한 불안 11문항, 일반적 특성은 6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삼원그릿척도

한국청소년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한 3요인 모형척도로 정은이[23]가 개발 및 타당화한 삼원그릿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력지속 5문항, 흥미유지 5문항, 조화열정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6이었다.

2) 진로불안

진로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카와 동료들[24]의 대학생 정서·성격적 진로문제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진로불안' 문항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경희[25]의 연구로 진로 과정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의 3개 하위요인인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77이었다.

3. 연구과정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과 통제집단 12명으로 실험집단의 개입 후 통제집단에게도 개입을 실시하였다. 총 8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검증된 그릿 관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21,26,27]. 각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 요인에 따른 자세한 활동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Table 1. Grit Improvement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단계	단계목표	회기	활동내용
초기	·친밀감형성 ·동기부여	1	· 프로그램 소개하기 · 사전검사 실시 · 집단원들의 친밀감형성 - 내 이름으로 삼행시 - 자기 소개하기 - 집단명 정하기
		2	· 자기탐색과 자기 이해 - 나의 버거주 활동 - 자문자답 · 직업의 미래 - 4차산업혁명과 미래직업시장
		3	· 긍정적 태도 - 감사일기 쓰기(대상: 나, 타인) · 내 강점 찾기 - 원석,보물 탐색 · 내게 맞는 직업 찾기 - 관심 직업 알아보기

· 흥미유지 · 자기동기 · 긍정사고 확장 · 가치관	4	· 내안의 나 - 자존감과 열등감 · 나의 직업가치관 - 직업의 목적가치 찾기	
	5	· 근자감 콘서트 -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 미래그림 - 10년동안 이루고 싶은 Dream List	
	6	· 성공과 실패 -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 나눔 - 집단원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 · 비전만들기 - 10년 후 내모습 그리기	
	7	· 다시 도전하기 - 도전하는 자세 기르기 -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성취감 · 역량개발 - 미래의 내 명함 만들기	
종결	· 긍정적미래상 형성 · 마무리하기	8	·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갖기 · 변화된 자신의 그릿 인식하기 · 칭찬사위 · 사후검사 실시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불안과 그릿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알아보기로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진로불안과 그릿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모수통계분석인 Mann-Whitney U Test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관한 실험집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맨 휘트니 유 검사(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불안과 그릿의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Table 2. Verification of the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N=24)

		M	SD	U	Z	p
Persistence of effort	E.G	3.31	.73	42.500	-1.716	.086
	C.G	3.81	.82			
Maintain interest	E.G	3.85	.73	36.500	-2.102	.036
	C.G	4.18	.88			
Harmonious passion	E.G	3.03	.91	50.000	-1.301	.193
	C.G	3.45	.69			
Grit	E.G	3.40	.681	38.500	-1.943	.052
	C.G	3.81	.68			
Process anxiety	E.G	3.29	.38	44.000	-1.711	.087
	C.G	2.89	.63			
Uncertainty anxiety	E.G	3.20	.82	54.000	-1.050	.293
	C.G	2.87	1.03			
Responsibility anxiety	E.G	2.98	.64	53.000	-1.100	.271
	C.G	2.72	1.18			
Career anxiety	E.G	3.11	.67	54.000	-1.047	.295
	C.G	2.86	.99			

2.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변화

실험집단이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 진로불안과 그릿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검사(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 그릿($Z=-3.506$, $p=0.00$)과 하위요인인 노력지속($Z=-2.708$, $p=0.07$), 흥미유지($Z=-2.770$, $p=0.06$), 조화열정($Z=-3.313$, $p=0.01$)은 모두 통제집단의 그릿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불안($Z=-3.506$, $p=0.00$)과 하위요인인 과정불안($Z=-2.826$, $p=0.03$), 불확실성불안($Z=-2.974$, $p=0.03$), 책임불안($Z=-2.937$, $p=0.03$)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3.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

Table 3. Pre-Post Difference ver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 (N=24)

		M	SD	W	Z	P
Persistence of effort	Pre	3.31	.73	103.500	-2.708	.007
	Post	3.81	.82			
Maintain interest	Pre	3.85	.73	102.500	-2.770	.006
	Post	4.18	.88			
Harmonious passion	Pre	3.03	.91	93.000	-3.313	.001
	Post	3.45	.69			
Grit	Pre	3.40	.68	89.500	-3.506	.000
	Post	3.81	.68			
Process anxiety	Pre	3.29	.38	102.500	-2.826	.003
	Post	2.89	.63			
Uncertainty anxiety	Pre	3.20	.82	99.000	-2.974	.003
	Post	2.87	1.03			
Responsibility anxiety	Pre	2.98	.64	99.500	-2.937	.003
	Post	2.72	1.18			
Career anxiety	Pre	3.11	.67	97.000	-3.084	.002
	Post	2.86	.99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의 변화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고 그릿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그릿과 하위요인인 노력지속, 흥미유지, 조화열정은 프로그램 전후 개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내면화를 통해 형성된 조화열정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꾸준히 지속되는 일관성이 핵심인 흥미유지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하며 흥미는 인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과 관련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동기와 성취에도 영향을 준다[28]. 노력지속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29],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에도 재도전하여 성취 가능성이 높다. 그릿과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21,26,27,30]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진로불안과 하위요인인 과정불안, 불확실성불안, 책임불안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막대한 공포까지도 불러 일으키는 진로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1].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학업활동과 진로준비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막연하고 과도한 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32].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그릿을 향상시키고 진로불안을 낮춰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지역사회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릿향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그릿을 향상시켰고, 진로불안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결론을 바탕으로 제안한다면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 검사로 그쳤으므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후 검사를 통해 그릿과 진로불안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의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만의 한정된 대상이 아닌 다양한 연구 대상과 학년별, 학교별 집중 진로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H.G. Shin, J.Y. J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2, No. 4, pp. 815-827, 2003.
- [2] H.J. Shin,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3, No. 2, pp. 349-373, 2016.
- [3] W.S. Joo, E.K. Byun, G.M. Le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College Fresh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309-316, 2021.
- [4] H.S.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dictors of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1165-1187, 2013.
- [5] M.J. Park, J.H. Kim, M.S. Je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pp. 417-435, 2009.
- [6] H.J.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1, pp. 157-184, 2013.
- [7] K.Y. Joe, S.M. Ha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4, pp. 565-575, 2021.
- [8] Y.H. Son,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9, No. 1, pp. 235-253, 2010.
- [9] N.A. Fouad, "Work and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8, pp. 543-564, 2007.
- [10] F.T.L. Leong, S. Chervinko,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No. 3, pp. 315-330, 1996.
- [11] C.R. Wanberg, P.M. Muchinsky,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9, No. 1, pp. 71-80, 1992.
- [12] Daniels LM, Clifton RA, Perry RP, Mandzuk D, Hall NC, "Student teachers' competence and career certainty: the effects of career anxiety and perceived contr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 9, No. 4, pp. 405-423, 2006.
- [13] Y.R. Jang, J.Y. Huh, "The effect of Grit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8, No. 4, pp. 819-834, 2019.
- [14] E.Y. Oh, K.S. Kim, "The Relationship of Airline Service Major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Vol. 21, No. 4, pp. 59-73, 218.
- [15] S.H. Yoon, J.S. Lee,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4, No. 6, pp. 487-506, 2020.
- [16] L.K. Thaler, R. Koval, *Grit to Great: How Perseverance, Passion, and Pluck Take You from Ordinary to Extraordinary*, New York: Crown Business, 2015.
- [17] A. Duckworth,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M.J. Kim, Grit, The power of passionate persistence that transcends IQ, talent, and environment*. Seoul, 2018: Business Books, 2016.

- [18]Y.K. So, S.J. Yang,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Emerging Adulthood,”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8, No. 4, pp. 363-382, 2021.
- [19]E.Y. Yang, G.H. Le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growth mindset,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 and tena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5, No. 5, pp. 145-161, 2021.
- [20]Jung EY, “Mediating Effects of Everyday Creativity Between Grit, Optimism and Colleg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 19, No. 2, pp. 23-48, 2019.
- [21]K.W. Oh, J.K. Tak, “The Effect of Grit Enhancement Group Coaching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aching Psychology*, Vol. 4, No. 1, pp. 21-46, 2020.
- [22]E.Y. Kim,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9, No. 4, pp. 1079-1100, 2007.
- [23]E.Y. Ju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riarchic Grit Scal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19, pp. 1231-1255, 2019.
- [24]N. Saka, I. Gati, K.R. Kelly,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6 No. 4, pp. 403-424, 2008.
- [25]K.H. Min, “A Validation Study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 for College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 [26]H.E. Ahn, H.J. Le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Play Therapy Program to Improve the Grit of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Vol. 19, pp. 49-63, 2021.
- [27]S.Y. Han, H.E. Yoo, Y.H. Park, “Effects of a Grit Enhancement Program on Middle-School Students’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 Differences by Mastery Goal Leve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33, No. 1, pp. 1-28, 2021.
- [28]D.H. Schunk, J.L. Meece, P.R. Pintrich,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2014.
- [29]H.J. Lim, Y.K. Yoon, “Grit and Preference for Challenging Task: Focusing on the Moderational Effect of Academic Competence on Interest and Effor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9, No. 4, pp. 657-675, 2017.
- [30]M.R. Lee, J.H. Tak, H.W. Lee,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it enhancement program for pre-serviced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0, No.17, pp. 1255-1282, 2020.
- [31]M.H. Yang,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1.
- [32]H.S. Oh, J.H. Lee,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ife Goa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3 No. 1, pp. 85-108, 2020.